



좋은Gyo6 나눔

11,12월의

positive Gyo6 freecycle 2023
경북 선생님들의 감동적인 교육 실천 이야기

옹기종기_송혜선 / 전) 영주초등학교 교사

‘질문이 넘치는 교실’

“질문으로 배움의 깊이를 더하고,
질문으로 배움을 잇다”

SUMMARY | 요약

01 — 배움의 깊이를 더하는 질문이 넘치는 교실

남양초등학교는 울릉도에 위치한 전교생 26명의 작은 학교로 학생 스스로 문제를 인식해 질문을 만들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질문 문화 확산, 미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학생 질문대회를 개최하였다. 학년당 학생 수가 4~5명밖에 되지 않아 학교의 특성에 맞게 학년 단위로 팀을 이루어 실시한 학생 질문대회는 4단계로 진행되었는데, 1단계 학년별 탐구주제 정하기, 2단계 탐구 질문 만들기, 3단계 탐구 수행하기, 4단계 학습결과물 공유하기(러닝페어)이다. 울릉도 남양초에서 실시한 학생 질문대회를 소개한다.

02 — 묻고 답하며 배움을 잇다

‘학생’에게 ‘학교’라는 공간은 어떤 의미일까?라는 물음에서 시작되어 질문의 양을 물리적으로 늘리는 것만큼이나 다양한 학생이 가진 질문을 균형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필요성에 이르기까지 질문을 통해 배움의 선순환이 시작되었다. 질문 규칙을 정해서 연습하고 질문 게시판, 상상 게시판, 휴대폰의 ‘smart view’ 기능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자발적인 질문을 환영하는 문화를 조성하여 긍정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포항제철지곡초 김보미 선생님의 질문이 어우러진 교실 이야기를 소개한다.

03 — 삶을 더 풍요롭게, ‘질문’ 가득 담은 교실

고대 아테네 시민들이 모여 자유롭게 토론을 펼쳤던 아고라를 본떠 나의 생각과 뜻을 자유롭게 말하고 친구와 토론하며 가치판단의 과정을 충분히 경험하고, 책과 역사 속에서 생생한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I.C.E.활동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삶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질문’ 가득 담은 교실로 만들기 위해 교실 속 작은 토론장을 가꾸고자 고민하여 실천하고 있는 풍북초 황인률 선생님의 질문이 넘치는 교실을 소개한다.

Vol. 31

발행인 박용희

발행일 2023년 12월 1일

발행처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편집 교육과정부

‘탄소Zero’ 실천으로 종이인쇄물을
발간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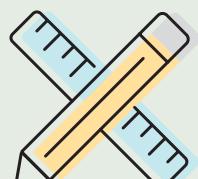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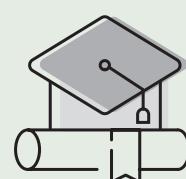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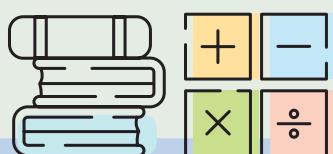
◆◆◆◆◆



PART 1.

배움의 깊이를 더하는 질문이 넘치는 교실

남양초등학교 교사 이수진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Gyeongsangbuk-do Office of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01

들어가며

남양초등학교는 울릉도에 있으며 전교생 26명의 작은 학교이다. 학교 주변에는 육지에서 그 흔하다는 학원 하나 없고, 드넓은 바다만 끝없이 펼쳐져 있다. 전교생이 온 종일 돌봄교실에 참여하여 4시 30분까지 선생님과 함께 공부한다. 육지 학생들 만큼 공부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항상 밝고 즐겁게 공부하고 있으며,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려 학생들의 개별 특성을 살린 맞춤식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02

질문이 넘치는 교실

‘질문이 넘치는 교실’은 올해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의 핵심화두이다. 단순 주입식 교육을 벗어나 학생 스스로 문제를 인식해 질문을 만들고 해결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자연스러운 질문 문화를 확산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본교에서는 ‘남양초 학생 질문대회’를 개최하였다. 도시에 있는 큰 학교같으면 학년 별로 대회를 진행하면 되겠지만, 우리 학교는 학년당 학생수가 4~5명 밖에 되지 않아 학년 단위로 팀을 짜서 대회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학생 질문대회는 크게 4단계로 진행되었는데, 1단계 학년별 탐구주제 정하기, 2단계 탐구 질문 만들기, 3단계 탐구 수행하기, 4단계 학습결과물 공유하기(러닝페어)이다.

[1단계: 탐구주제 정하기]

탐구주제를 정하는데 있어서 너무 막연하다는 선생님들의 의견이 있어 큰 주제를 하나 정하여 거기에서 팀별로 각각 세부적인 주제를 정하기로 하였다. 대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이번 학생 질문대회 러닝페어를 개최한 10월 25일이 독도의 날이어서 질문대회의 대주제를 ‘독도’로 정하여 학생들이 독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공부해보며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다.

학년별로 탐구 주제를 ▷독도의 동식물 ▷독도와 관련된 인물 ▷독도 강치 ▷독도의 자연환경 등으로 정하여 팀별로 1주일간 조사 및 탐구활동을 실시했다.



탐구를 수행하는 모습



발표 연습 및 예상 질문 답변해보기

[2단계: 탐구 질문 만들기] 및 [3단계: 탐구 수행하기]

질문이 습관화되지 않은 학생들은 아직 질문에 대해 어색해하고 어려워하여 각 담임 선생님들께서 함께 지도해 주셨다. 먼저, 학생들에게 질문의 유형 및 종류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이 주제와 관련해서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이니?” “조사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니?” 등의 질문을 통하여 학생들의 조사활동을 돋고,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건 왜 그럴까?” 등의 질문을 통해 학생들이 더 깊이 있는 탐구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4단계: 학습결과물 공유하기(러닝페어)]

팀별로 탐구한 내용을 정리하여 전교생 앞에서 발표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PPT, 전지 등에 탐구한 내용을 정리하였고, 파트를 나누어 자신들이 공부한 내용을 다른 학생들에게 발표하였다. 전교생 앞에서 발표할 기회가 보통 흔하지 않기에 긴장하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이 또한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이 된 것 같다. ‘질문 대회’이기에 질문하는 발표가 끝나고 질문하는 시간도 편성하였다. 발표자의 설명을 잘 듣고 궁금한 내용이나 출처 등을 질문하였고, 발표하는 학생들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면서 주제에 대해 깊이 공부할 수 있었다.



강치를 주제로 발표하는 5학년



독도의 천연자원 질문에 답변하는 6학년

03

배움의 깊이를 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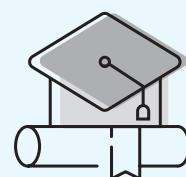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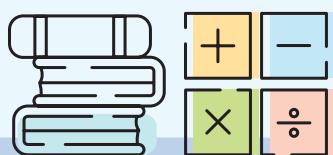
심사 결과, 1등은 독도의 자연환경을 주제로 발표한 6학년 학생들이 차지했다. 6학년 정하율 학생은 “발표하는 것이 떨렸지만, 질문하고 대답하며 독도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며 “앞으로 수업 시간에도 궁금한 것을 많이 질문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교장 선생님께서도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답을 잘할 뿐만 아니라 질문을 잘할 수 있는 학생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학생들을 격려하며 대회를 마무리하였다.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현대사회에 질문 능력은 학생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역량이다. 질문하고 답하며 배움의 깊이가 더해지는 교실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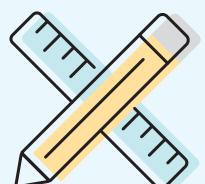
PART 2. 묻고 답하며 배움을 잇다

포항제철지곡초등학교 교사 김보미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Gyeongsangbuk-do Office of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01

'학생'에게 '학교'란?

얼마 전 우연히 본 EBS '잠자는 교실'이라는 다큐멘터리 속 자는 아이들로 가득한 고등학교 교실 장면은 눈가에 서글픈 물기를 남겼다. 그 교실 속 한 학생은 학원에서 배우고 학교에서는 생활기록부나 사회생활 때문에 오는 곳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배움'이라는 단어가 학생들에게 어떤 정의로 받아들여지는지 깊은 생각을 불러오는 장면이었다.

'학생'에게 '학교'라는 공간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학생이 학교에 배우기 위해서 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배움'을 가장 적극적으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정서는 무엇인가? 바로 무엇인가를 알고 싶다는 '호기심'이다. 무엇인가에 궁금함이 생기고 또래에게 생기는 호기심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배움이 일어날 때 학습은 의미를 가진다. 이는 교실을 질문이 가득하도록 만드는 것이 학교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이다.

02

질문이 어우러진 교실의 첫 단추 훠기 : 질문 규칙 정하기

시샘을 유발할지도 모르겠지만 40분 수업에서 학생들의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학급 구성원이 학습에 열의가 높은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리라.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고민은 있다. '늘 질문을 하는 학생만 한다는 것'. 질문이 많은 것이 무엇이 문제겠느냐 하겠지만 호기심이 많은 소수의 학생들에게 질문 시간을 지나치게 할애하면 수업에 소외되는 학생들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질문의 물리적 양을 늘리는 것만큼이나 다양한 학생이 가진 질문을 균형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필요를 느꼈다. 특히 저학년일수록 특정 학생 질문 쏠림현상이 강해지는데,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학기 초 질문 규칙을 익히고자 했다.

규칙 1. 같은 주제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 또 생기면 '질문 게시판'에 포스트잇으로 한다.

한 학생이 질문 후 계속하여 질문이 생기는 경우 교실 뒤 '질문 게시판'으로 가서 포스트잇으로 작성 후 부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수업이 끝난 후 답변을 할 수 있는 학생이 답변 포스트잇을 부착한다. 답변 중 가장 자신의 호기심을 잘 해결해 준 친구를 기록했다가 보상을 하면 참여도를 높일 수 있었다.

규칙 2. '만약에' 질문은 상상 게시판을 활용한다.

특히 저학년 '안전'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주 겪을 수 있는 일이다. 큰 원칙이나 규칙을 이야기하는데 매우 드문 가능성을 가진 상황을 가정하여 하는 질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거나 집중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런 경우 '너희들 생각은 어때?'라는 상상 게시판 화이트보드를 만들어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하였다.

규칙 3. 질문과 답변을 할 때 말하는 방식을 공부한다.

학생들이 조사한 내용을 발표하거나 모둠별 프로젝트를 할 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를 습관화하였다. 그리고 친구가 한 질문에 답변이 떠오르지 않을 때 “그 부분까지는 조사하지 못하였습니다. 질문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나중에 답변을 하겠습니다.”로 하여 학생들 사이에서 수업이 끝난 후에도 게시판을 통해 계속해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볼 수 있었다.

질문 규칙을 정하고 연습하자 몇몇 학생들에게 편중되던 질문의 기회가 다양한 학생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었고, ‘질문 게시판’을 활용하니 평소 질문과 답변의 과정에 소외되었던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질문 게시판이 가득차면 휴대폰의 ‘smart view’ 기능을 활용하여 교실 화면으로 학생들의 질문과 답변을 비춰주며 학급 구성원 모두가 이를 배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장하였다. 그 결과 자신의 아이디어로 박수를 받는 경험, 다양한 사고를 유도한 질문으로 칭찬을 받는 학생들이 많아지자 질문으로 인한 배움의 선순환이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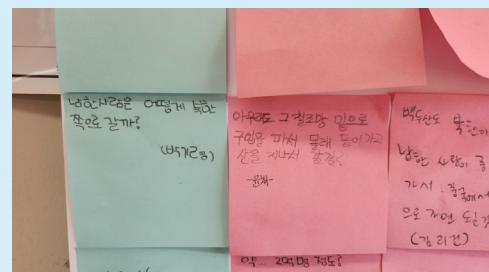
묻고 답하며 배움 잇기



질문 규칙을 통해 모둠별 프로젝트에서의 활동 완성도 높이기



질문 게시판 1



질문 게시판 2

03

질문으로 배움을
잇고 길을 여는
아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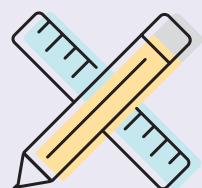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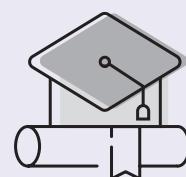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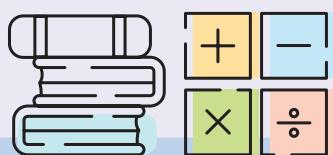
어렸을 때 우리는 질문이 많았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질문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호기심에 찬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일을 그만두었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질문을 환영하는 문화를 조성하여 질문-답변 활동에 대한 긍정적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한다면 이를 통해 ‘배움’을 실현하는 교실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PART 3.

삶을 더 풍요롭게, '질문' 가득 담은 교실

풍북초등학교 교사 황인률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Gyeongsangbuk-do Office of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01

들어가며

교실에서 학생들이 무심코 자주 던지는 질문이 무엇일까? “선생님 오늘 뭐해요?”, “선생님 이거 왜 해요?” 매일 들리지 않으면 섭섭한 말들 아닐까? 이 섭섭한 말들도 사실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목적과 의미를 찾으며 끊임없이 질문하며 살아간다. 우리 교실을 삶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질문’ 가득 담은 교실로 만들기 위해 교실 속 작은 토론장으로 가꾸고자 고민해 보았다. 이번 질문 있는 교실에서는 고대 아테네 시민들이 모여 자유롭게 토론을 펼쳤던 아고라를 본떠 나의 생각과 뜻을 자유롭게 말하고 친구와 토론하며 가치판단의 과정을 충분히 경험하고, 책과 역사 속에서 생생한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I.C.E.활동을 개발하였다. 단계별 내용으로 I(Information) 단계에서는 배운 내용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간략히 정리하고 핵심 내용을 파악한다. C(Curiosity) 단계에서는 등장인물이나 특정 사건에 대해 하고 싶은 질문을 정리해본다. E(Expression) 단계에서는 짹 토의, 모둠 토의, 전체 토의 및 다양한 추체험 활동으로 구성하였으며 가치판단의 결과로 우리 반의 실천 규칙을 만들어볼 수 있도록 했다.

02

'On책' 글에서
피어나는 '질문'

‘On책’ 프로젝트는 아이들이 소설 속 인물과 사건에 대하여 추체험하고 삶의 지혜를 구하는 온 책 읽기 수업이다. 도덕적 가치판단을 위한 질문을 제시하거나 학생들이 직접 ‘탐구 질문’을 찾아보고 내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아침 활동 시간 단편소설을 함께 읽고 떠오르는 질문들을 친구들과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하였는데, 질문이 떠오르지 않아도 자신의 생각을 말하면 된다고 말해주었다. 아침 활동 시간에 꾸준히 진행한 결과 학생들은 질문하는 것에 어려움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지 않고 즐겁게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아이들은 다음 내용이 무엇인지 가르쳐달라고 투정 부리기도, “등장인물이 너무 짜증나요.”라며 몰입도 있게 분석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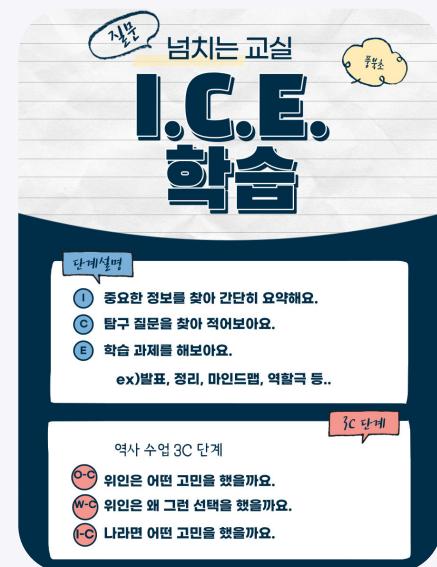
03

역사 속 살아숨쉬는 '질문'

척화파와 주사파가 대립하던 그 순간, 세종이 신하들의 반대에도 훈민정음을 만들기로 결심하던 그 순간, 윤봉길 의사가 도시락 폭탄을 던지기로 결심하던 그 순간, 역사 속 중요한 모든 순간에는 '질문'이 존재했다. '우리는 이미 누군가 했던 '질문'을 다시 경험하면서 그들의 삶의 지혜를 배울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으로 역사 수업 속 I.C.E. 활동을 적용하였다.

학생들이 I.C.E. 단계 중 역사 탐구 질문을 위해 C를 3단계로 나누어 역사 속 인물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하였다. 첫 번째는 O-C(Original Curiosity) 단계인데 위인이 했었던 고민은 무엇인지 찾아보는 단계이다. 두 번째는 W-C(Why Curiosity) 단계인데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생각해보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I-C(If Curiosity) 단계는 나라면 어떤 고민을 했을지 생각해보는 단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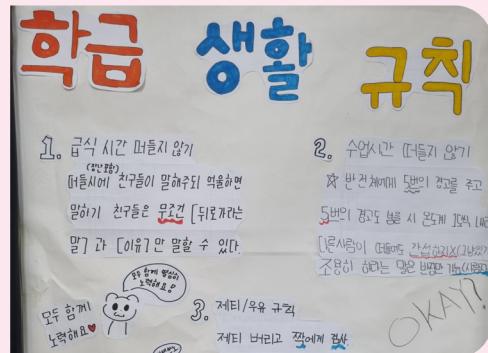
“나라면 독립운동가들을 보며 어떤 고민을 했을지 적어봅시다.” 선생님의 말에 한참을 골똘하던 한 학생은 이렇게 적었다. “25년 뒤면 해방되는데, 할까 말까 고민이다.”



04

교실 속 작은 토론장 '아고라'

질문은 단순히 질문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생활과 연결될 때 의미를 가진다. 우리 반에서는 학급 회의 시간, 또는 수업 시간에 '아고라'라는 토론장을 운영하여 안건이 있는 학생들이 '아고라' 중앙으로 나와 안건을 이야기하면 그 안건을 주제로 학생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와 같이 쉴 틈 없는 질문 공세가 이어진다. 이때 교사는 학생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며 이야기하도록 하고 허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아고라'에서 다수결로 결정된 내용들을 학급 행사, 규칙에 반영하였다. 자신의 생각이 학급 활동에 반영되는 것을 보면서 학생들은 스스로가 학급의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갖고 학급의 일에 더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의사소통 및 공동체 역량을 키울 수 있었다.



05

마치며

질문이 넘치는 교실을 운영하며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사고의 폭을 넓히고 친구들의 생각에 공감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질문을 만드는 것을 어려워했지만 점차 아이들이 활동에 즐겁게 참여하고 좀 더 나은 학급 생활을 위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사로서 보람됨을 느꼈고, 학급 분위기도 밝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학생들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으로 '질문'은 의미를 다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